



교실 속 작은 사회 ② 혐오와 차별 무심코 했는데 혐오와 차별이라고요?

김청연 글, 김이주 그림

2025년 7월 18일 출간 | 판형 152*215 | 152쪽 | 14,800원 | ISBN 979-11-6774-222-3 73300

분야 국내도서 > 어린이 > 3-4학년 > 사회 / 국내도서 > 어린이 > 교양 > 사회교육

책 소개

<교실 속 작은 사회> 시리즈, 두 번째 책!
우리 일상 속 혐오와 차별 찾기!

<교실 속 작은 사회> 시리즈는 초등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두 번째 책, 《무심코 했는데 혐오와 차별이라고요?》에서는 교실은 물론, 우리 일상 곳곳에 숨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진지충’, ‘극혐’. 남들 다 쓰는 말이라서 나도 썼다고?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 ‘맘충’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어린이는 시끄럽게 구니까 카페에 출입이 안 된다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교육 관련 기자로 일해 왔던 김청연 작가는 그동안 만난 어린이와 청소년이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실감 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해 왔던 말과 행동 등이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자.

저자 소개

김청연 글

세상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였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일간지 교육 섹션 기자, 신문 활용 교육(NIE) 전문 기자로 일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어요.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매개로 다양한 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죠.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다른 이의 마음과 상황을 잘 읽고 헤아리며 살고 싶어요. 그동안 쓴 책으로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왜요, 그 뉴스가 어때서요?》, 《기억해, 언젠가 너의 목소리가 될 거야》, 《중등 처음 신문》 등이 있습니다.

김이주 그림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친근하고 정감 가는 동화 속 주인공들로 따뜻한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미스터리 보 건실 냥쌤》, 《탈탈탈 노트》, 《쓰레기가 삼킨 100층 아파트》, 《나쁜 말 청소부》, 《에너지를 지켜라!》, 《채소 마을 콩 대장》,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 《선물 상자, 추억 상자》 등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둘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자, 친구들 몇 명이 준수와 선주를 에워쌌다.

“헐, 어찌라고!”

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비쭉거렸다. 선주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너 뭐야!”

“꼬와? 이선주 너 말투 진짜 짜증 나거든. 진지충!”

췌개 채널에서 들었던 표현이 자기도 모르게 준수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 p.19

사회에선 대다수의 사람과 성향이나 겉모습이 다르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해요. 보통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이 사회적 약자로 불립니다.

사회 전체에서 여성은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로 불려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정치, 경제,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 p.36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 어른의 자유는요?”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까요? 게다가 어른과 어린이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어린이는 수나 권력으로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 속해요.

- p.68

흔히 ‘혐오 표현’ 하면 ‘언어’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때론 제스처(몸짓)도 혐오 표현이 된답니다.

뉴스를 보면 흑인 축구 선수에게 바나나를 던진 유럽 관중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해요. 이것은 흑인 선수들의 피부색이 마치 원숭이처럼 까맣고,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비하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에요. 그러니 비판받아 마땅하죠.

- p.116

추천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담은 이 책과 만나게 되어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칫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들을 일방적인 설명이나 훈계가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무엇보다도 매력적입니다. 평화로운 교실과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추천

나도 모르게 내뱉는 혐오와 차별의 말들이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작아지게 만드는지 깨닫게 해 줘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모두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정정희(교사, 《땀글 달기 전에 생각해 봤어?》 저자) 추천

차례

추천사

등장인물

1장 혐오란 무엇일까요?

교실 속 이야기 1 많이 쓰는 말인데

교실 속 이야기 2 ‘이상한 애’, ‘틀린 애’

1 혐오의 뜻

2 편견·고정 관념→차별→혐오

3 혐오와 차별의 화살이 향하는 곳

선생님, 질문 있어요!

간단한 활동

2장 일상에서 만나는 혐오와 차별

교실 속 이야기 3 그저 외모가 다를 뿐인데

교실 속 이야기 4 우리 집은 비정상

1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 ‘노 키즈 존’에 숨어 있는 차별 요소

3 가정 형편을 둘러싼 잘못된 시선

4 일상에서 숨은 혐오와 차별의 씨앗

선생님, 질문 있어요!

간단한 활동

3장 확장하는 혐오와 차별

교실 속 이야기 5 노인들은 제발 가만히 계세요

교실 속 이야기 6 그런 민족은 사라져야 해!

1 ‘키오스크’에 숨은 차별 요소

2 나이 든 사람을 향한 혐오

3 인종·민족을 향한 혐오

4 우리 안의 인종 차별

5 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생님, 질문 있어요!

간단한 활동

4장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교실 속 이야기 7 혐오에는 혐오로?

교실 속 이야기 8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1 ‘먼지 차별’과 혐오

2 혐오와 차별에는 혐오와 차별로?

3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활동

선생님, 질문 있어요!

작가의 말

출판사 서평

한 번쯤은 겪어 봤을 법한, 공감 백배 이야기!

“언니는 예쁘고 늘씬한데 재는 꼭 살찐 펭귄 같네.”

“애 하나 못 챙기면서 커피는 마시고 싶나? 맘충”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이나 하는 거야.”

“어르신이 오래 앉아 계셔서 젊은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4학년 3반 아이들이 겪는 이야기는 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4학년 3반 아이들은 때로는 가해자로서, 때로는 피해자로서 이야기 중심에 서 있다. 독자들은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며 공감하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재미로 한 말에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족을 공격한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제스처와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도 혐오와 차별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자신과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는 인권 감수성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돌아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강요나 명령이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설명

4학년 3반이 겪는 이야기들을 통해 누군가는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정상 가족 아닌가? 장애인들은 정상이 아니니까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 많이 들어 왔던 표현, 그 속에도 혐오와 차별이 있었다니!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런 의문을 품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은 어떤 면에 혐오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게 한다. 단어가 품은 뜻이 무엇인지, 제스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 기계는 왜 차별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본다.

그렇게 차곡차곡 지식을 쌓으며 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결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생기는 궁금증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코너로 꾸렸다.

혐오도 감정인데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인지, ‘병신’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고 일상에서도 많이 쓰던데 왜 쓰면 안 되는지, 외모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나쁜 일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온다. 질문들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은 이야기와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명쾌한 답변으로 어린이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행동을 주의하여 한층 성장하게 될 것이다.